

■광주일보 56년 지역민과 함께

호남인과 반세기 이상 애환을 함께 해 온 광주일보의 역사는 광주·전남 현대사의 축소판에 다름없다. 전쟁과 혁명, 군부 독재와 유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이어지는 격변 속에서 때론 고통과 울분을, 때론 감격과 환희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눴다.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타블로이드판 2개면으로 출발한 광주일보는 56년의 성장(星霜)을 책임 있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이 되기 위해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론을 펴고, 문화창달과 지역개발을 선도하며 호남 대표 일간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지켜왔다.

광주일보의 뿌리가 되는 구(舊) 전남일보는 1952년 2월 10일 창간됐으며, 전남매일신문은 4·19 직후인 1960년 9월 26일 탄생했다. 두 신문은 지역 여론을 주도하는 공기(公器)로서 선의의 경쟁을 해오다 1980년 11월 29일 신군부의 언론 통제합조처에 의해 문을 닫고 같은 해 12월 1일



<1952년 전남일보 창간호> <1980년 통합된 광주일보>

‘광주일보’라는 제호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은 신군부의 재갈에 물려 10일동안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참담함을 겪는다. 두 신문은 6월4일 속간호에서 ‘민주시민의 긍지-무등산은 알고 있다’ ‘광주는 영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절규를 대변했다.

이후 광주일보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존재했던 유일한 지방신문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5·18의 진상규명에 매달려왔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연재한 ‘5·18그 후 9년’(1989년 보도)은 5·18에 대한 최초의 진상보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다양한 연재물과 심층보도를 통해 정론·자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왔다.

2003년 11월 1일 새로운 경영주를 맞이한 광주일보는 그 달 17일 제3대 해재호 회장이 취임하면서 ‘제2의 창간’을 선언했다.

광주일보와 함께 한 격동의 광주·전남 56년을 10년대별로 묶어 간주린다.

호남 현대사 산 증인으로 ‘正論 56년’

◇1950년대=전쟁과 좌우 대립의 상흔 속에 해마다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가난의 시대였다. 1950년 겨울부터 6·25의 전선은 사실상 북상했지만 지리산을 무대로 한 이른바 공비와 군경간의 치열한 전투는 53년까지 계속됐다. 1949년 340만2천명이었던 전남인구가 55년 센서스에서는 312만6천명으로 준 것은 좌우 살상의 비극을 설명해준다.

광주시내 주요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 시작은 54년 12월의 일이었다. 55년부터 광주 등 전남 주요 도시에서는 무허가 관자집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50년대 후반은 자유당 정권의 전횡과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던 시기. 전남에서도 59년 제4대 민의원선거 부정사건이 터졌다. 같은 해 6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잡지 ‘야화’의 ‘하와이 근성’사건이 터지자 전남일보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연일 사실과 기사를 통해 통박했다. 잡지는 폐간되고 필자와 발행인들은 구속됐다.

◇1960년대=혁명과 쿠데타, 4·19와 5·16으로 문을 연 60년대는 생존권 확보의 시대였다. 60년 4월 19일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광고생 500여명의 가두시위가 다른 학교로 확산됐고 급기야 경찰의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전남도 혁명성취의 기쁨과 독재타도의 흥분에 휩싸였다.

광주의 4·19에서는 고교생 3명을 포함한 8명이 숨졌고 74명이 부상했다.

정치는 꽃피었으나 민생은 도탄에서 헤어날 줄 몰랐다. 혼란을 틈타 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고 전남북 계엄사무소가 설치됐다.

개발독재 속에 재건의 망치소리가 요란했다. 6·25 때 공습으로 부서진 광주역사가 61년 11월 신축됐고 62년 12월엔 나주호남비료공장이 준공됐다. 64년엔 경전선 철도가 개설됐으며 66년엔 광주에 아시아자동차공장이, 69년엔 여수 호남정유가 들어섰다.

◇1970년대=산업화의 시대 70년대는 ‘새마을 운동’의 새벽종 소리와 함께 열렸다. 전남에도 산업화와 도시와 바람이 불었지만 독재에 신음하며 자유를 목말라하던 시대였다. 69년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정권은 72년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긴급조치와 계엄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며 국민을 노예상태로 내몰았다.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끝나가던 70년 4월 호남고속도로가 착공됐고 73년 11월 부산~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와 함께 개통됐다.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화순 동복댐이 완성된 것은 71년 2월이었고 4월엔 영산강종합개발공사가 시작됐다. 74년 광주 광천교가 개통됐고 광남로 확장공사가 시작됐다. 73년 김대중 납치사건과 74년의 국가비상사태선포로 정치적 암운은 깊어갔다. 신안앞바다에 해저유류이 잇따라 인양됐고 여천석유화학 제2공단이 준공되던 79년 10월 박 대통령은 궁정동에서 피살됐다.

◇1980년대=80년대는 광주에서 시작했다. 5월 17일 비상

계엄확대로 서울의 시위가 일순 증지된 반면 광주에선 전남대생들이 18일에도 비상계엄해제와 김대중씨 석방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계속했다. 시위대는 도청을 향했고 특전대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이후 광주는 무장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속에 고립됐다. 항쟁은 5월 27일 계엄군의 진압작전으로 10일만에 끝났다.

광주·전남 주민들은 5공화국의 철저한 언론통제 아래 극도의 소외감속에 80년대를 보내야 했다. 20년을 끈 호남선 복선화 공사가 81년 7월 착공되고 영산강하구언이 완공됐으며 광주~대구를 잇는 ‘88올림픽고속도로’가 착공됐지만 주민들의 여객은 파질줄 몰랐다.

86년과 87년에는 광주와 서울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시위가 노도와 같이 일어나 6월 항쟁과 6·29선언으로 이어졌다. 이 사이 광주는 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남도와 분리됐다.

◇1990년대=80년대 후반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장개방의 국제적 조류는 아직도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광주·전남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다가왔다.

95년 6월에는 민선 지방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틔웠다. 같은 해 7월에는 여수 앞바다 소리도 인

근에서 ‘시프린스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거대여당을 기반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IMF 사태를 초래했다. 97년 12월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DJP 연합과 호남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동안 보수 정권이 맡아왔던 권력이 진보쪽으로 이동하면서 건국 이후 첫 여야간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2000년대=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남북 해빙 무드가 무르익은 시기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성과는 지난해 10월초 평양에서 개최됐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한반도에 봄의 웃음을 입혔다.

2002 한·일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은 ‘꿈은 이뤄진다’는 국민들의 열띤 응원에 힘입어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4강 신화를 일궈냈다. 같은 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광주 경선에서 접화된 ‘노풍(盧風)’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해에는 신정아씨 사건으로 화력 검증 열풍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으며 연말 대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 10년만에 보수 정당이 권력의 중심부로 이동했다. 여수는 지난해 11월 모로코와 폴란드를 누르고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지난 4월8일 오후 8시16분39초, 한국 첫 우주인인 광주 출신 이소연씨가 우주로 날아올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1955년의 총장로 거리. 광주우체국 앞에서 총장로 3가 쪽을 바라본 모습이다. 파리양복점 간판이 보이고 머리를 담은 여고생과 원피스 차림의 멋쟁이가 거리를 누비고 있다.



80년대 벽두에 터진 5·18 광주민중항쟁은 광주·전남을 영원한 민주와 인권, 평화의 고향으로 만들어놓았다. 젊은이를 구터하고 있는 공수특전대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평양시내 4·25 문화회관 광장 공식환영식에서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광주일보 창사 56주년을 축하합니다. (주)금영건설, (주)애송중입건설, 남영건설. Includes logo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construction companies.